

〈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

박일용**

— <차 례> —

1. 문제의 제기
2. 남성적 욕망의 투사체로서 우물(尤物)과 요귀(妖鬼)
그리고 여귀(女鬼)와 여선(女仙)의 형상
3. 〈최치원〉의 형식과 주인공 최치원의 욕망 성찰 방식
4. 결론

〈국문초록〉

〈최치원〉의 구성은 남성 주인공 최치원이 율수 현위에 제수된 뒤, 쌍녀분의 주인공들과 환상적인 만남을 나누고, 이튿날 아침 그 만남을 회상하는 장편시를 지으며, 귀국하여 은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주인공이 겪은 환상 체험을 내부로 하고, 체험 이전의 상황과 체험 이후의 상황을 외부로 하는 액자 형식을 지닌 소설임을 뜻한다.

남성주인공 최치원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는 환상 체험을 통해서 여성 주인공들의 성적·사회적 욕망이 남성 중심적 성윤리의 폭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액자 밖의 현실 세계에서 그녀들과의 만남을 회고하여 그것의 의미를 성찰해 봄으로써, 그녀들과의 만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2011. 2월에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초기 애정전기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맞게 150매 이내로 분량을 조절하라는 편집진의 지시에 따라, 4장을 삭제하고 서론과 결론을 수정한 후 제목을 변경한 것이다. 심사 당시와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것은 이 때문이다.

** 홍익대학교 교수

남을 꿈꾸던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의 의미를 각성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사실은 <최치원>이 그간의 연구에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남성주인공의 성적 욕망을 여성 주인공에게 투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인공 최치원을 ‘바람둥이’처럼 그린 작품이 아니라, 초기 애정 전기소설인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과 같이 남성주인공이 여성주인공에게 투사된 자신의 욕망을 성찰함으로써, 여성주인공 뿐 아니라 남성주인공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의 현실적 의미를 각성해가는 과정을 그림 작품임을 뜻한다.

주제어 <최치원>,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초기 애정전기소설, 액자소설 형식, 욕망의 성찰

1. 문제의 제기

주지하듯이 전기소설의 주된 향유층은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남성 사계층(士階層)이며,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이들 향유층과 유사한 한미한 문사로 설정된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전기소설을 ‘한미한 문사의 불우’(不遇), 또는 ‘주인공의 고독감, 내면성, 소극성, 문예취향’, ‘한미한 지식인의 소외의식 및 현실 질서에 대한 비판적 세계관의 표현’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여 소외된 문인 지식층의 이념과 관련시켜 해석해 왔다.¹⁾

그런데, 최근에 전기소설의 해석에서 남성 주인공의 불우를 강조하는 연구 경향이 경직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1) 그래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설명할 때, 그것이 “사계층 문인지식인의 사회적 정치적 욕망”으로서 “주인공이 지기(知己) 지음(知音)을 만나는 형식 즉, 지우(知遇)와 인정(認定)을 추구하는 양식”이라고 정리한 윤재민 교수의 말을 인용하곤 한다. 전기소설의 장르적 지표에 대한 제가의 견해는 이정원 교수가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서강대 박사논문, 2003)의 2~4면에 정리해 놓았다.

남성 주인공들이 보이는 ‘건달풍의 유희 또는 풍류기남적’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을 통속성의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²⁾ 그리고 이어 <최치원>에서 주인공의 ‘불우’(不遇)만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가 이 작품의 ‘남성판타지’로서의 성격과 남성 주인공이 보이는 ‘바람둥이적 행태’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 형상에 투영된 남성의 성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성과가 제출되었다.³⁾ 이후 <최치원>의 남성 주인공의 성격을 성적 욕망을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바람둥이적 형상”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그간의 연구에서 애정 전기소설의 플롯에 투영된 남성주의적 시각을 외면해온 것이 연구자들의 남성주의적 태도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남성 주인공의 소외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연구 경향에서 나아가, 애정 전기소설에 형상화된 애정의 의미를 여성 주인공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최치원>의 경우 남성 주인공의 ‘바람둥이’ 형상이 갖는 텍스트 내적 의미에 대한 정밀한 분석적 연구와 함께 그것이 갖

2)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 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3), 54~67면.

3) 조혜란, 『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최치원』, (『여/성이론』, 여이연, 2003), 126~143면.

4) 김경미 교수는 ‘전기소설이 남성주인공의 욕망을 합리화해 주는 텍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남성의 연애서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이나 미학이 어떻게 반복 재생산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아울러 오늘날의 연구가 갖고 있는 남성 중심성을 드러내고 해체하고자 한다’는 목표 아래, <최치원>을 “구원받아야 하는 여성의 서사”로, <이생규장전>을 “소극적인/달아나는 남성, 적극적인/희생하는 여성의 서사”로, 그리고 <주생전>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의 서사”로 규정하고, <운영전>과 <강도몽유록>을 이러한 남성 중심의 젠더화된 플롯의 전환 지점이라 해석하였다.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문학연구』 20, 2010), 214~242면.

는 당대 질서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들이 이어졌으며, 17세기 소설들의 경우 남성주인공이 드러내는 폭력적 태도의 의미 및 여성주인공의 형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최근의 문제 제기적 연구들은 연구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⁵⁾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애정 전기소설들 그 가운데 특히 <최치원>에는 분명히 남성주인공의 ‘풍광한’(風狂漢)적인 성적 욕망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성주인공의 형상에 남성주인공의 성적 욕망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정 전기소설이 단순히 그러한 남성주인공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하거나, 이들 애정전기소설의 여성주인공의 욕망을 단순한 남성적 욕망의 투사로만 이해하는 경우, 이들이 성취한 소설사적 의의가 지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이 개개 작품의 일면적 특징, 또는 전기소설 양식의 일면적 특징을 작품 또는 전기소설 양식의 특징으로 일반화하면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5) <운영전>의 주인공인 운영, <이생규장전>의 최랑, <만복사저포기>의 하씨 등 여성주인공의 유편적 상황과 성적·사회적 욕망에 대한 논의가 개별 작품 차원에서는 간단히 이루어졌지만, 여성 주인공에 대한 연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 이후 ‘17세기 한미한 양반 남성들의 사랑 지상주의와 판타지 속에는 권력의 주변부에서 사랑 또는 여성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대리충족하려는 현실 지향적 욕망이 암시되고 있다’고 해석한 서지영 교수의 논의, 애정 전기소설에 형상화된 남녀 사이의 사랑의 형태와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조선시대 애정소설에서는 남성적 시각이 투영되어 여성에게 매혹되자마자 곧바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는 남성과 남성의 유희를 쉽사리 받아들이고 관계를 허락하는 여성,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기까지의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리는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고 해석한 김지영 교수의 논의 등 애정 전기소설에 형상화된 남녀 주인공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서지영, 『규범과 욕망의 틈새: 조선시대 문학 속의 섹슈얼리티』(고소설학회편, 『한국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서. 2009), 9~36면; 김지영, 『조선시대 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고소설학회편, 『한국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서. 2009), 38~78면.

이러한 생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품 해석이 논쟁적 형태로 이루어진 『태평통재』 소재 <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작품에 그려진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적 욕망이 일방적으로 투사되어 형성된 우물(尤物), 여귀(女鬼), 요귀(妖鬼), 여선(女仙) 등의 형상을 살펴보고, 이들과 <최치원>에 형상화된 남녀 주인공의 욕망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발생기 애정 전기소설 작품인 <최치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애정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남성적 욕망의 투사체로서 우물(尤物)과 요귀(妖鬼) 그리고 여귀(女鬼)와 여선(女仙)의 형상

남성 중심적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제적 규범에 수렴되지 않는 여성의 성적·사회적 욕망은 남성 중심적 지배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욕망을 불온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투영되어 이루어진 대표적인 형상으로 우물(尤物)을 들 수 있다. 애초 우물(尤物)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특별한 물건을 총칭하는 말이었는데, 뒤에는 오히려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뛰어난 미색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우물(尤物)이란 말에는 미색이 뛰어나다는 뜻과 함께 괴이(怪異)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성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남성 중심적 지배질서를 흔드는 여성의 미색이 두렵고 괴이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⁶⁾ 전통사회에서 우물(尤物)로서 여성의 미색이 왕

6) 인터넷 판 百度百科 사전에서는 우물(尤物)을 『좌전』 소공조의 숙향 모친의 이야기,

에서부터 아래로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남성 중심적 지배질서를 지키는 주체들이 경계해야 할 첫째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 때문이다.⁷⁾

그래서 남성들에게 “말희(妹喜)가 사랑을 독차지하자 하(夏) 나라 운수는 기울었고, 포사(褒姒)가 사랑을 독차지하자 주(周) 나라 종묘사직이 망했으며,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난리라는 말이 상서(商書)에 있고, 한 나라에서는 조비연(趙飛燕)이 황자(皇子)를 낳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우물(尤物)들이 천하 국가에 화를 입히는 일이 허다하였다”(妹喜嬖而夏祚傾 褒姒寵而周宗滅 鷄晨於商 燕啄于漢 尤物之禍天下國家也)⁸⁾ 투의 말로 성적·사회적 주체로의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일깨워 왔다.

중국의 애정 전기소설 가운데 이처럼 성적·사회적 주체로서 여성의 존재를 직접 우물(尤物)로 규정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앵앵전>을 들 수 있다. <앵앵전>의 주인공 장생은 ‘성품이 온화하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性溫茂 美風容) ‘마음이 굳어서’(內秉堅孤)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非禮不可入) 사람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23세까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未嘗近女色)고 한다.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따져 묻자’(知者詰之) 그는 ‘바람둥이’(登徒者)와 ‘호색자’(好色者)를 구분하면서, 자신은 ‘호색자’(好色者)로서 색을 마음에 두지 않은 적이 없

<앵앵전>, 백거이(白居易)의 <진량묘>(眞娘墓), <홍루몽>에 등장하는 용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baike.baidu.com/view/30465.htm)

- 7) 세종이 당명황(唐明皇)이 우물(尤物)에 빠져 자신의 치적을 무너뜨린 사례를 들어 후대의 왕에게 경계하기 위해 『명황계감』(明皇戒鑑)을 지은 것이나, 다산이 <사제(舍弟) 황(鑛)에게 주는 글>에서 비장(裨將)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우물(尤物)인 관기(官妓)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라 경계한 것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다산 시문집』 제17권 증언(贈言) <사제(舍弟) 황(鑛)에게 주는 말>
- 8) 최항, <명황계감서>, 『국역 동문선』 95권, 한국고전종합 DB. 번역은 본인이 일부 바꾸었다.

으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물’이 욕정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답한다.⁹⁾ 이러한 장생의 태도는 여성을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경계하는 남성 중심적 성윤리를 전형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앵앵전>에는 이러한 윤리관을 갖는 장생과 성적·사회적 주체로서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여주인공 앵앵 사이의 갈등이 형상화된다.

앵앵은 어머니의 강요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준 장생과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장생은 앵앵의 미색에 미혹되어(張自是惑之) ‘욕정을 해소하려’(欲值其情) 앵앵에게 접근하여 밤마다 서상(西廂)에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앵앵은 장생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걸 알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장생이 과거를 보러 떠나자 장생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마음을 간곡히 표현한 편지를 전하지만 장생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생은 작가이면서 작중 서술자인 원진에게 앵앵을 우물(尤物)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덕의(德義)가 없어서 요열인 앵앵의 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이야기한다.¹⁰⁾ 이러한 장생의 말은 우물(尤物)이란 말의 가장 이른 용례

9) “바람둥이는 호색자가 아니라 훗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진정 호색자라네. 그런데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지. 무릇 우물을 일찍이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욕정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네”(登徒者非好色者 是有兇行 余真好色者, 以適不我值 何以言之. 大凡物之尤者 未嘗不留連於心 是知其非忘情者也) 김중근 편역, 『중국전기소설선』, (박이정출판사, 2005), 336면. 번역은 이 책을 참고하면서 본인이 손을 대었다.

10) “무릇 하늘이 명한 바 우물(尤物)은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오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네. 만일 최씨가 부귀하여 총애를 얻는 경우 비구름이 되지 않으면 교룡이 될 것이니 나는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네. 옛 은나라의 주(紂)왕 주나라의 유(幽)왕이 백만의 군주로서 그 세가 두터웠으나 한 여자로 말미암아 폐망하여 무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몸을 죽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천하의 비웃음꺼리가 되고 있다네. 나는 덕의가 부족하여 요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 정욕을 참아낸 것

로 거론되는, “덕의(德義)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물의 화를 피할 수 없는 법”이라고 미색(美色)을 경계한, 진(陳)나라 대부 숙향(叔向)의 모친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¹¹⁾

이처럼 <앵앵전>에서는 여성의 존재를 우물(尤物)로 보는 남성 주인공과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자각하는 사회적·성적 주체로서의 여주인공 사이의 애정 갈등이 섬세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성윤리의 차이가 대조되어 선명하게 부각된다. 그리고 이처럼 여성을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성적·사회적 주체로서 여성의 존재를 불온하게 여기는 장생의 태도가 전통적인 윤리의식과 어떻게 접맥되는가를 선명히 보여준다.

한편, 여기서 나아가 『보한집』 소재 <이인보 설화>나 『어우야담』 소재 <전라도사 김모>, 『용천담적기』의 <채생 이야기>, 그리고 『태평광기』 소재 <하간유별가>(河間劉別駕), <중요>(鍾繇), <도덕리서생>(道德里

이네”(大凡天之所命尤物也, 不妖其身 必妖於人. 使崔氏子遇合富貴 乘寵嬌, 不爲雲爲雨 爲蛟爲螭, 吾不知其所變化矣. 昔殷之辛 周之幽 據百萬之國 其勢甚厚, 然而一女子敗之, 潰其衆屠其身, 至今爲天下僂笑. 予之德不足以勝妖孽, 是用忍情) 김중균, 앞의 책, 340면. 번역은 일부 필자가 손을 댔음.

- 11) 우물(尤物)이란 말의 최초의 용례로 흔히 춘추좌전 소공(昭公)조에 소개되는 진(晉)나라 대부 숙향(叔向)의 모친의 말을 거론한다. 당대의 절세 미모였던 하희(夏姬)는 첫번째 남편인 하어숙(夏御叔)의 양기를 소진시켜 죽게 만들고, 진(陳)나라 군주인 진영공(陳靈公), 대부 공녕(孔寧), 그리고 의행보(儀行父)와 사통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아들 하징서(夏徵舒)를 죽게 만들었으며, 초나라로 가서는 두 번째 남편 양로(襄老)를 죽게 만들었고, 다시 진(晉)나라로 가서 세 번째 남편 신공무신(申公巫臣)도 망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숙향(叔向)이 신공무신(申公巫臣)과 당대의 하희(夏姬) 사이에 태어난 딸을 아내로 맞으려 하자, 그의 모친은 하희의 예를 들어 미색을 경계하면서, “대저 우물(尤物)은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넉넉하니, 진실로 덕의가 아니면 반드시 재앙을 입게 된다”(夫有尤物 足以移人 苟非德義 則必有禍)고 하였다고 한다. 하희의 미모가 그 딸에게 이어졌으니, 그 미색을 취하면 그의 어머니 하희(夏姬)가 수많은 남자를 패망하게 했듯이 반드시 패망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좌전』소공(昭公) 28년조.

書生), <주오>(朱敖), <오도>(鄔濤), <견충>(甄沖) 등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초현실적 존재인 요귀(妖鬼)로 설정되어, 실제로 남성을 유혹하여 성 관계를 맺으면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앵앵전>에서 장생이 앵앵을 우물(尤物)로 인식하여 장차 자신과 국가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우려했던 것처럼,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이야기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여인과 성관계를 즐기는데, 그러한 사실이 불교의 승려, 도사, 관리, 남성 주인공의 부모 등 타인에게 발각되는 한편, 그들이 그 상대가 요귀(妖鬼)라는 걸 주인공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¹²⁾ 이는 이들 서사에 남성주인공이 여색(女色)에 빠져서 지배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지배질서에 편입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하는 남성중심적 이념이 주도적으로 개입된다는 걸 뜻한다. 이들 서사물에서 요귀(妖鬼)가 관리나 관리가 될 서생들을 유혹하여 관청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려지며, 남성주인공들로 하여금 직분을 망각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며, 심지어 죽음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결국 위협이나 부적에 의해 퇴치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건 이 때문이

12) 예컨대, 『용천담적기』의 「채생 이야기」에서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따라온 외간 남자에 대해 적극적인 성 관계를 갖고, 그 결과 남주인공은 병이 들어 고생을 하며 무당의 곳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태평광기』 소재 「종요」(鍾繇)에서는 주인공 종요가 지속적으로 관청에 나타나는 귀녀와의 성 관계에 빠져서 조정에 나가지 않게 되자, 그 귀신을 살해하라는 동료의 충고를 듣고 귀녀를 갈로 퇴치하였다고 한다. 「정기」(鄭寄)에서는 주인공 정기가 길을 가다가 수레를 태워 달라는 여인과 정자에서 성 관계를 가진 뒤 죽는데, 그 여인은 이웃 마을의 어떤 남자의 죽은 아내로 밝혀진다. 또, 『오도』(鄔濤)에서는 객지의 여관에 머물면서 밤마다 나타나는 귀녀와 성 관계를 맺다가 도사의 방술을 따라 귀녀를 축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다. 이처럼 요귀(妖鬼) 형상은 남성주인공의 성적 욕망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성적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성 중심적 이념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한편, 『태평광기』 소재 <오상>(吳祥), <주임하>(周臨夏), <담생>(談生), <왕공백>(王恭伯), <노충> 등에는 소외된 남성 주인공과 은밀하게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그러한 관계를 맺은 후 남성에게 신물(信物)을 주어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받게 하는 한편, 도움을 주어 불우한 처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여귀(女鬼) 형상이 등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요귀(妖鬼) 형상이 나타나는 서사물들과 달리, 이들에서는 남성중심적 지배 이념에 해당하는 타자의 시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적 존재가 남성주인공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귀(女鬼) 형상은 현실 세계에서 원하는 짝을 얻기도 쉽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남성 주인공들의 성적·사회적 소망이 투영된 것이다.¹³⁾ 그러므로, 이러한 여귀(女鬼) 형상이 등장하는 서사물에는, 마흔 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간 담생, 사냥을 하여 먹고사는 노충, 하급 관리로서 관직을 버리고 산 속에 숨어살려는 오상, 태자궁의 마름인 왕공백, 하급 관리인 주임하 등과 같이 현실세계에서 소외된 남성 주인공이 설정된다.

그런데 이들에는 귀녀들이 현실에서 소외된 남성주인공의 성적·사회

13) 예컨대, <왕공백>(王恭伯)에서는 '주인공 왕공백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 금(琴)을 타면서 같이 지내다가 비단 요와 향주머니를 주고 정표로 옥비녀를 받고 떠나간다. 마침내 왕공백이 여인의 영구에서 그 요와 향주머니를 훔친 범인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그녀의 부모가 왕공백의 말을 듣고 시신의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확인하여 그를 사위로 대접한다. 귀녀는 신표를 매개로 자신과 왕공백 사이의 부부 관계를 인정받는 한편, 왕공백은 이러한 '명혼'을 매개로 현실적 처지를 상승시킨 것이다.

적 욕망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설정되면서도, 정작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구체화되지 않는다. 성적 사회적 주체로서 여성의 형상이 구체화되지 않고, 남성 주인공의 욕망이 일방적으로 투사되기만 한 것이다.

한편, 『태평광기』의 <장운용(張雲容)>, <마사랑(馬士良)>, <성공지경(成公智瓊)>, <곽한(郭翰)>, <조욱(趙旭)>, <최서생(崔書生)>, <장호처(張鎬妻)>, <천태이녀(天台二女)>, <두란향(杜蘭香)> 등의 이야기에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이상적인 형태로 해소해주는 여선(女仙) 형상이 등장한다.

예컨대, 이들 이야기에선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들이 한미한 남성 주인공에게 하룻밤의 운우지락을 청하거나 부부의 인연을 맺자고 청하여 환상적인 성 관계를 갖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들은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이러한 성관계를 즐기는데, 타인의 눈에 발각되면 그 관계는 청산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 여선 형상은 남성주인공들이 일탈적 성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제약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더 할 나위 없는 대상이다.¹⁴⁾ 이러한 여선(女仙) 형상은 남성주인공들의 성적 욕망을 극단적으로 이상화시켜 투사한 것이다.¹⁵⁾

14) 예컨대, <성공지경(成公智瓊)>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초라는 남성의 꿈에 아름다운 성공지경이라는 선녀가 나타나 시중을 들면서 상제의 명으로 속세에 시집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여덟 명의 시비를 거느리고 실제로 나타나 진기한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 먹으면서 투기하는 마음 없이 낭군을 방해하지 않으며 모시겠다고 하여 부부가 된다. 그 뒤 세속에서 부인을 맞은 뒤에는 낮과 저녁 시간을 나누어 각기 즐거운 생활을 했다한다. 훗날 타지방으로 옮겨간 뒤에는 선녀가 가끔 다녀가게 되었는데 현초가 그녀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이별을 고하고 사라진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성공지경을 만나 가끔 방문을 하는 관계로 지냈다 한다.

15) 여선의 이러한 특징에 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박재인 교수의 성과를 들 수 있다. 박재인 교수는 『태평광기』에 수록된 여선과 지상 남성의 결연 양상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들 작품에 형상화된 여성의 특징과 의미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박재인, 『초월적 여성과의 결연 서사

흔히 <최치원>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되어 온 <유선굴>(遊仙窟)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최십랑(崔十娘)은 이러한 여귀(女鬼)와 여선(女仙)의 형상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앞에 든 『태평광기』의 서사물들 뿐 아니라 <유선굴>(遊仙窟)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성적 욕망을 마음껏 해소하는 장면만 펼쳐질 뿐, 남녀 주인공들의 사회적 성격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에 살펴볼 <최치원>이나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 우리나라 애정 전기소설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3. <최치원>의 형식과 주인공 최치원의 욕망 성찰 방식

그간의 <최치원> 연구에서는 남성 주인공 최치원의 성격을 ‘불우(不遇)한 문사’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성적 욕망을 거칠게 드러내는 ‘바람둥이’로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가 나뉘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¹⁶⁾ 양

유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태평광기(太平廣記)』의 여선 서사와 한국의 전기적 남녀결연 서사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19~114 면.

- 16) 서론에서 언급한 조혜란 교수의 논문 이후, <최치원>의 주인공인 최치원의 바람둥이적 형상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 예컨대 이정원 교수는 “성애에 대한 말초적 탐닉과 대응”으로, 이상구 교수는 “허구적 형식을 빌어 성적 유희를 마음껏 탐닉한 것”으로, 정규식 교수는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의 몸짓인 동시에 주체 자각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최귀묵 교수는 텍스트에 나타난 이러한 남성 주인공의 ‘바람둥이적 형상’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여 <유선굴>과 비교하였다. 정출현, 『초기 한문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미적 구원 양상』, (임형택 진재교외,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대출판부, 2005), 2001면; 정규식, 『최치원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5~31면; 이정원, 『애정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 《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71~73면;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적 욕망과 좌절』, 《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12면. 최귀묵, 『전기 <최치원> 다시 읽기』, 《문학치료 연구》 16집, 문학치료학회, 2010. 07), 37~58면.

쪽 논리 모두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혼란스럽게 느껴 지기도 한다.¹⁷⁾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해석하면서 논란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치원>에서 서술자는 먼저 최치원이 신라인임을 밝히고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율수 현위로 부임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그리고 임지 내에 있는 초현관을 찾아갔다가 쌍녀분을 보고, 무덤 주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녀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의 시를 썼으며, 그녀들이 밤에 찾아와 환상적인 만남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무덤 앞에 와서 그 만남을 회상하면서 그 의미를 성찰하는 회고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 최치원은 세상이 뜬구름 같다는 시를 짓고 귀국을 한 뒤, 산수 사이를 떠돌다 가야산에 은거하였다고 이야기한다.¹⁸⁾

이러한 <최치원>은 이중 액자 형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쌍녀분의 석문 앞에서 시를 지은 뒤, 이튿날 아침 다시 무덤을 찾아 회고시를 짓는 최치원의 행위가 외부 액자에 해당하며, 시에 답하여 최치원을 찾아온 무덤 주인과 갖는 환상적인 해후 체험이 액자 내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17) 최근에 <최치원>을 “당대(唐代) 애정전기의 서사문법을 수용한 토대에서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남성적 욕망(특히 성적 욕망)을 표현했기 때문에” 주인공 최치원이 “경박한 바람둥이적 면모”를 갖게 되었다고 분석한 최귀묵 교수의 분석이 가장 정치하다. 최귀묵 앞의 논문, 37~58면.

18) 임태식 교수는 최근에 <최치원>에 등장하는 전고를 분석하여 주인공 최치원이 초현실 체험에서는 쌍녀분의 주인들을 실질을 한 여인에 빗대었다가 회상시에서는 절의를 지키는 여인들에 빗대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莫將心事戀妖狐”라는 구절에서 요호(妖狐)가 심기제가 <임씨>의 평에서 정생이 임씨를 대했던 것 같은 태도를 가리킨다면, 이 구절을 요호같은 미색에만 끌려서는 안된다고 해석하고, <최치원>의 장가(長歌)에는 두 여인을 성적 대상에서 ‘지기(知己)로 인식하는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순차적인 인식의 변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전고 해석과 요호(妖狐) 관련 대목의 해석에서는 임태식 교수의 해석에 동의한다.

러한 초현관에서의 체험을 둘러싼 최치원의 삶 전체가 또 하나의 외부 액자에 해당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액자 형식의 구성 가운데 가장 내부에 해당하는 초현실적 체험에 나타난 주인공 최치원의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상기할 것은 주인공의 액자 내부 체험은 액자 외부의 현실적 사건과는 구분되는 환상적 체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주인공 최치원 스스로 ‘거듭 생각해도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이 든다고’(獨座思量疑夢中 沈思疑夢又非夢) 고백하는 초현실적 사건이다. 체험 주체가 이처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체험 상대가 귀녀(鬼女)인 초현실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주인공의 꿈이나 환상체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초현실적 존재인 귀녀(鬼女)들을 제외하면 그 자신만이 이는 은밀한 사건으로서 주인공의 내면 체험에 가까운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내면 체험에 해당하는 것을 주인공의 현실적 태도로 규정하는 경우 작품의 실상과 어긋나는 해석이 나타난다.

한편, <최치원>에서는 주인공 최치원이 쌍녀분의 주인공들과 해후를 한 다음날 아침, 다시 무덤을 찾아와 그 만남을 회상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액자 밖의 현실 상황으로 돌아와서 액자 안의 환상 체험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매개로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성찰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이 작품이 단순히 주인공이 이루어내는 환상적 형태의 욕망의 해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상 체험을 매개로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을 대상화하여 그것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임을 뜻하는 것이다.¹⁹⁾

19)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최치원>의 구성에서 회상시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에서는 극히 일부 구절의 내용적 의미 이외에 이 회상시

이렇게 보면 <최치원>을 온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현실적 체험 형식을 빌어 표출되는 성적·사회적 욕망의 현실적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액자의 내부에 표출되는 주인공의 태도와 액자의 외부에 형상화되는 태도를 조응시켜 그것들이 지니는 총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최치원>에 그려진 사건이 이처럼 주인공의 내면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때, 그의 내면으로의 여행은 쌍녀분의 석문을 보고(題詩石門曰) 지은 시(詩)에서 시작된다. 그는 어느 집 사람인지 모를 두 여인의 무덤 앞에서(誰家二女此遺墳), 쓸쓸하게 저승 문에 갇혀 청춘을 원망하면서 보낼 안타까운 처지를 상상하면서(寂寂泉扃幾怨春), 그들의 모습을 시냇가의 달빛에 비추어 떠올려보고(形影空留溪畔月), 무덤 앞에 먼지만 쌓여 있어 성명을 물어볼 수도 없다(姓名難問塚頭塵)면서 그들의 사연을 궁급해 한다. 만일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무덤 주인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법한 상황이 설정된 것이다.

『육조사적편류』에 소개된 <쌍녀분기>나 『대동운부군옥』의 <선녀홍대>는 이러한 두련(頭聯)과 합련(頷聯)의 상황에 상응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²⁰⁾ 이들 대목에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초성향 장씨의 두 딸인데,

가 갖는 구성적 의미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간에는 대체로 “대장부여 대장부여 모름지기 장부의 기개로 아녀자의 한을 제거할 것이나, 요호를 연연 해하는 데 마음 쓰지 말지어다”(大丈夫大丈夫 壯氣須除兒女恨 莫將心事戀妖狐)라는 마지막 구절이나, 두 여인을 만난 뒤 동작대(銅雀臺)를 세운 조조(曹操)의 권세나 금곡(金谷)에서 누린 석송(石崇)의 부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草沒銅臺千古恨 花開金谷一朝春) 구절만을 내세워 최치원의 성격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20) 이정원 교수는 <최치원>과 <선녀홍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설득력 있게 분석하였다. 이정원, 『애정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 『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71~73면.

아버지가 현리가 되지 않고(不爲縣吏) 지방의 독점적인 호족이 되어(獨占鄉豪) 부를 동산(銅山)처럼 쌓고 석송처럼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들을 각각 차장사와 소금장사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한다. 그리고 인현(仁賢)한 사람을 짝으로 맞으려 했던 그들인지라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불만스러운 마음이 맺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면서(姓名難問塚頭塵)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최치원의 시에 감응하여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여인이 자기 아버지 장씨는 현리가 되지 않고(不爲縣吏) 초성향의 독점적 향호가 되어(獨占鄉豪) 부를 누리면서 소금장사(鹽商) 및 차장사(茗估)를 자신들의 혼처로 정했다고 한 점이다. 이 말에는 첫째 인현(仁賢)한 사람을 혼인 상대로 맞고 싶은 무덤 주인들의 사회적·성적 욕망과 부와 세력이라는 세속적 가치 사이의 거리, 둘째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이역의 땅에 와서 말단 관리가 된 최치원의 처지와 부와 세력이라는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 질서 사이의 거리가 언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최치원>을 ‘한미한 문사의 불우’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해석하는 경우나, 주인공 최치원을 ‘바람둥이적 인물’을 그린 작품이라 해석한 경우 모두, 상대 여성의 존재를 남성 주인공의 ‘지기(知己)에 대한 욕망’ 또는 ‘성적 욕망’의 투사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전기적 설화나 전기에서처럼 단순히 남성주인공의 욕망의 투사 대상으로 그려지는 여귀(女鬼)나 여선(女仙)의 형상과 <최치원>에 설정된 여귀(女鬼)의 형상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최치원>에서는 무덤에 갇힌 두 여인의 처지가 아버지로 대변되는 세속적 질서에 의해 사회적·성적 주체성을 박탈당한 채 윤패된 여성의 억압적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최치원>에서 여귀들이 스스로 저승의 빗장을 열고 나와 자신들의 뜻대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한 까닭은, 자신들의 사회적·성적 주체성이 아버지에 의해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 현실성의 정도 문제를 떠나서, 쌍녀분의 주인들은 당대 여성의 질곡적 현실을 반영한 주체적 형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통념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 여성 주인공이 성적 욕망을 방탕하게 해소하려는 우물(尤物) 또는 요귀(妖鬼)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남성주의적 성윤리를 고수하는 한 자신의 이처럼 야합적 관계를 맺으려는 여성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쌍녀분의 주인들이 자신들이 절의(節義)를 지키지 못한 여인들과 다르다는 걸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당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통념적 윤리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인공 최치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에 진출한 청년으로서, 인의(仁義)라는 지배 이념적 성윤리를 강요받는 존재이다. 그는 세속적 가치라는 현실적 장벽 뿐 아니라, 인현(仁賢)이라는 이념적 억압 기제에 의해서도 성적 욕망을 차단당한 것이다. 쌍녀분 주인들과의 해후를 바라는 주인공 최치원의 꿈은 이처럼 사회적·성적 욕망이 억압당하는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만일 꽃다운 정이 저승의 꿈에 통할 수 있다면(芳情儻許通幽夢) 긴 밤에 나그네를 위로한들 거리길 게 있으랴(永夜何妨慰旅人)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로운 객관에서 운우의 정을 나눌 수 있다면(孤館若逢雲雨會) 그대들과 더불어 낙천부를 이어 부르리(與君繼賦落川神)’라고 노래한, 석문 앞에서 지은 시의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의 내용은 이를 뜻한다. 그는, 낙천부의 작자인 조식(曹植)이 낙천신인 복비(宓妃) 또는 자신이 사모했던 견후(甄后) 사이에서 느꼈던 천상과 지상 또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소연한 것이다.

초현실 체험에서 주인공 최치원이 두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과정은 이러한 주인공 최치원의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응된 것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에서 거듭 지적되었듯이 주인공 최치원은 시비 취금(翠禁)에게 ‘추근대다’(悅而挑之)가 핀잔을 듣기도 하며, 두 여인이 아무 말이 없자 “진라부(秦羅敷)를 알게 되었노라 말하려 했는데(將謂得知秦室婦) 원래 식부인인 줄 몰랐구료”(不知元是息夫人)라고 해서 핀잔을 듣는가 하면, “규중에 가서 황공의 사위가 되지 못하고(不向閨中作黃公之子婿) 도리어 무덤가에 와서 여노 진씨를 안았네(飜來塚側夾陳氏之女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인연을 만났는지 모르겠네”라고 이야기해서 풍광한(風狂漢)이란 핀잔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최치원의 태도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성 차원에서 보면, 최치원이 건넌 농담조의 이야기는 어색하고 딱딱한 잠자리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소통적 기능을 발휘하면서,²¹⁾ 동시에 여인들에게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말이다. 통념적 시각에서 보면 이들의 만남은 예법에 어긋나는 야합에 해당한다. 당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야합적 만남을 비난 여인들을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음란한 우물(尤物) 또는 요귀(妖鬼)로 인식한다. 최치원의 농담은 이러한 통념적 시각을 대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의 농담에 대한 여인들의 답변은, 통념적 시각을 지닌 당대의 독자들을 향한 자신들의 변호이기도 한 것이다. 여인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두 남자를 섬긴 식규(息媯)나 선화부인과 달리 아직 한 남자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 풍광한(風狂漢)의 노리개가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21) 황혜진 교수는 <최치원>의 서사가 “갈망-만남-탐색-유혹-구애-상애-친애-이별-여정”으로의 애정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다채로운 변화 양상을 펼친 것이라 해석하였다. 황혜진, 『최치원 남녀 대화의 양상과 특징』, (『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6~31면.

그리고 내용 층위에서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최치원이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어 자신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연출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이러한 최치원의 행위를 ‘바람둥이적’인 것이라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은 그것이 최치원 자신의 내면적인 환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한 것이다. 주인공 최치원의 행위는 환상체험 형식을 빌어 내면에 감추어진 억압된 성적 욕망을 드러내어 대상화한 것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취하는 그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와 달리 남성들의 성적 욕망은 미색(美色)에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중심 사회에서는 성윤리에서는 이처럼 충동적인 남성의 성적 욕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켜 여성을 우물(尤物)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남성중심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최치원의 태도는 우물(尤物)에 의해 미혹(迷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치원>에서는 이와 달리 우물(尤物)에 해당하는 귀녀(鬼女)들이 그러한 최치원을 풍광한(風狂漢)이라 비난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최치원이 보여준 충동적인 성적 욕망을 여성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비판이 주인공 자신의 내면적 환상 체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인공 최치원의 ‘바람둥이적’ 태도는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성적 욕망의 충동성을 드러내어 반성하려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목할 것은 이처럼 충동성을 내포한 최치원의 성적 욕망은 오히려 당대의 지배 이념에 의해 억압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에의 진출을 꿈꾸는 최치원으로서의 관리가 갖추어야 할 인현(仁賢)을 내세우는 금욕적 성윤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인공 최치원이 이튿날 아침에 지은 회상시에서 전날 밤의 환상체험에서 자신이 드러내었던

태도를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지러워진 미친 마음’(光心已亂不知羞) 때 문이었다고 회고하는가 하면, ‘장난삼아 시를 지었다고’(戲將詞句向門題) 하여 자신의 행위를 변명한 것은 이를 뜻한다. 귀녀들이 최치원을 찾은 것은 그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이전에 무덤 앞을 지나는 영웅들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비루한 사람들뿐이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수재를 만나보니 기상이 오산과 같아서 가히 깊고 깊은 이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往來者皆是鄙夫 今幸遇秀才 氣秀龜山 可與話玄玄之理)고 답한 것은 이를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주인공 최치원이, 여성을 남성의 자유로운 성적 욕망의 해소 대상인 여귀(女鬼)나 여선(女仙)으로 보거나, 아니면 남성의 충동적인 성적 욕망의 책임을 전가시켜 상대 여성을 요귀(妖鬼)로 보는 여타 서사물의 주인공, 아니면 덕의(德義)라는 통념에 매몰되어 여성을 우물(尤物)로 여기는 경직된 예교주의자들과 다르다는 걸 뜻한다. 주인공 최치원은 대부부의 남성들이 드러내는 충동적인 성적 욕망을 인현(仁賢)으로 억제하면서도, 야합적 결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대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오백년만에 비로소 어진이를 만나서(五百年來始遇賢)²²⁾ 또한

22) 이 논문의 논지와는 무관하지만 이 구절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여기서 주인공 최치원은 쌍녀분의 주인인 두 여인이 오백년래에 처음 어진이를 만났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를 ‘아주 오랜만에’라는 단순한 수식적인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의식, 무의식적으로 작가의 시간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조사적편류』의 <쌍녀분>에는 최치원이 율수위에 임명된 때가 “唐乾符中”으로 되어 있고 이 여인들이 묻힌 시기는 “天寶六年同葬于此”라고 757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최치원>에는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여 율수현위에 제수된 해는 “乾符甲午 學士裴瓚掌試 一舉登魁科 調授溧水縣衛”라고 분명하게 밝힌 반면, 여인들이 묻힌 해는 삭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오백년래 처음으로 어진이를 만났다”는 구절에는 주인공 최치원에게 자신을 투사한 작가 자신의 의식, 무의식적 시간관이 투사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여인들

즐기며 오늘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을지라도(且歡今夜得雙眠) 꽃다운 그대들 광객을 만났다고 괴이하게 여기지 마오(芳心莫愧親狂客) 일찍이 봄바람이 적선을 점지해준 거라오(曾向春風占謫仙)”라고 한 최치원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 최치원은 비록 자신이 성적 욕망을 드러내어 표출했지만, 그것을 타하지 말고 원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진세의 규범을 초탈한 적선(謫仙)의 분방함 정도로 받아들이라고 위로한 것이다. 만일 자신이 현실의 윤리 규범에 따라 성적 욕망을 억누르면서 무심코 쌍녀분을 지나쳤다면 그녀들이 자신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은 최치원은 초현실 체험을 통해 억눌린 성적 욕망을 해소한 한 뒤, 다음날 아침 다시 무덤 앞에 가서 장편의 회상시를 지어 어젯밤의 체험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반추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서 회상하는 내용이 그가 겪은 초현실 체험과 동일한 것이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인공 최치원은 스스로를 ‘웅재를 지녔으면서도 이역의 말단 관리가 된 자신을 한스럽게 여기는 사람’(自恨雄才爲遠吏)이라 밝힌다. 자신의 소외감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느낀 사회적·성적 욕망의 배경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자신과 무덤 주인들을 대상화하면서 자신은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폄하하는 반면, 상대 여성들은 미모나 절개 언변과 시문

이 문했다는 757년의 500여년 후 어느 때, 또는 최치원이 율수현위에 제수되었다는 874년의 500여년 후 어느 때 쯤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원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고려로 돌아온 최치원의 후손 최해가 최치원의 삶을 불우한 것이었다고 평가 하였듯이, 작품에 그려진 주인공 최치원의 소외 의식이 원나라 지배 체험을 겪은 고려후기 문인들의 소외 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해, 『拙菴千百』卷之二 <送奉使李中父還朝序>, 고전국학 DB.

의 능력을 들어 예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²³⁾ 이는 그들을 절개를 잃었던 여인들에게 빗대던 환상체험에서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주인공 최치원의 쌍녀분의 주인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응된다.²⁴⁾ 그리고 이러한 그리움은 “웅재를 지냈으면서도 변방의 말단 관리에 불과한 한스러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비로소 현달할 길을 찾았노라 생각했는데, 세력과 부(富)가 지배하는 현실 질서를 알고 나니 목표를 어디에 둘지 모르게 되었다(始聞達路又迷津)는 것이다. 그래서 조조와 같은 권세나 석승과 같은 부(富), 범인이면서 선녀를 만났다는 완조나 유신의 고사, 권세를 지냈지만 신선이 되지 한무제나 진시황의 고사도 다 부질없는 것이(悠然來忽然去)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 것이다.

한편, 회상시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자신이 쌍녀분의 주인을 만난 사실이 초상왕이 운우몽을 꾸 것과 흡사하다면서’(我來此地逢雙女 遙似襄王夢雲雨), “대장부여 대장부여, 남아의 기개로는 모름지기 아녀자의 한을 제쳐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요호를 연연해하는 데 마음을 두지는 말지어다”(大丈夫大丈夫 壯氣須除兒女恨 莫將心事戀妖狐)라고 하여, 초현실

23) 스스로 지은 시를 ‘장난삼아 지은 글’(戲將詞句向門題)이라고 폄하하며, 자신의 행위를 “미친 마음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狂心已亂不知羞) “꽃다운 마음을 허락할지 시험해 보았노라”(芳意試看相許否)고 부끄러워한다. 반면, 상대 여성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翠眉丹頰皆超俗) 선녀와 같은 자태(仙姿)를 지녔고, “술을 마시는 태도나 시정도 뛰어났으며”(飲態詩情又出群), 절개가 굳은 “사도온(謝道韞)처럼 말을 잘하는”(纔聞謝女啓清談)가 하면, 절개 높은 “반소(班昭)처럼 글도 잘 지었다”(又見班姬攜雅詠)고 예찬한다. 그리고 “정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까워져서 사랑을 하게 되어”(情深意密始求親) 청춘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正是艷陽桃李辰)면서, 함께 누린 시간을 황홀하게 묘사한다.

24) “말은 길을 가자고 우는데”(馬長嘶望行路) ‘미친 마음으로 다시 무덤을 찾아’(狂生猶再尋遺墓)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不逢羅襪步芳塵)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애가 끊어지는 돌아볼”(腸欲斷首頻回)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 사회적 성적으로 억압된 여성에 대해 남성이 취해야 할 당위적 자세를 제시한다.²⁵⁾

선행 연구에서는 이 두 구절 모두가 주인공 최치원 자신의 행위와 연관된 것이라 해석해 왔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끝맺음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각성한 대장부 일반이 취해야 할 당위적 태도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의 내부에 도사린 방탕한 성적 욕망과 그것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태도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억압적인 여성의 성적·사회적 처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자신이 겪은 환상체험을 매개로 자신의 소외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현실세계에서의 성적·사회적 욕망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주인공 최치원의 질곡적 상황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상체험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주인공 최치원의 현실에 대한 각성과 좌절감은 말미의 후일담으로 이어져 외부 액자 형식이 완성된다. 주인공 최치원은 신라로 귀국을 하면서 “덧없는 세상의 영화가 꿈속의 꿈이니 백운 깊은 곳에 몸을 맡기리”(浮世榮華夢中夢 白雲深處好安

25) 다만 바람둥이로 규정하는 입장의 연구자들은 말미의 “大丈夫大丈夫 壯氣須除兒女恨 莫將心事戀妖狐”라는 구절을, “대장부여 대장부여 남아의 기운으로 아녀자의 한을 제거한 것뿐이니 마음을 요망스런 여우에게 연연해하지 말아라”로 번역하여 최치원이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쌍녀분의 주인들을 요호(妖狐)로 규정했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大丈夫大丈夫 壯氣須除兒女恨 莫將心事戀妖狐”라는 구절을 그렇게 읽어와야 할지 망설여지는 구석이 있다. 그 경우 “壯氣須除兒女恨”에서 “須”의 어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대목을 “대장부여 대장부여, 모름지기 남아의 기개로 아녀자의 한을 제거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요호(妖狐)를 연연해하는 데 마음을 두지는 말지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엄태식 교수는 “애석한 일은 정생이 정민(精敏)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한갓 그녀의 미색만 좋아하고 그녀의 성정을 살피지 않은 것이다”라는 심기제의 논평을 들면서 여기서 “요호(妖狐)는 미색(美色)을 은유한 것으로서 연요호(戀妖狐)는 <임씨>에서 정생이 임씨를 대했던 것과 같은 태도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엄태식 교수의 이러한 해석은 정곡을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身)라는 시를 짓고, 영원히 물러나서 산림 강해의 중을 찾아 소요하다가 끝내 가야산에 은거했다고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구절을 두고 최치원의 실제 행적을 염두에 두면서 가필이 된 것으로서, 앞에 형상화된 최치원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이 대목은 인생 초반에 겪은 환상체험과 그것을 매개로 한 각성의 의미를 증폭시키기 위해 설정한 외부 액자에 해당한다. 인생 초반에 겪은 환상체험과 그것을 매개로 한 최치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제시한 후, 시간을 건너 뛰어 귀국을 하면서 삶 전체를 조망하면서 지었다는 시구(詩句)를 배치하고, 다시 최후의 행적을 배치함으로써 이중적인 액자 형식을 완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응재(雄才)를 지녔으면서도 해외(海外)에서도 그리고 국내(國內)에서도 뜻을 펼치지 못한 주인공 최치원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응축적인 형태로 부각시킨 것이다.

4. 결론

주지하듯이 <최치원>에서는 해외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율수 현위라는 말단 관리 생활을 하는 남성 주인공 최치원이, 쌍녀분의 주인공인 여성

26) 김건곤, 『신라수이전의 작자와 저작 배경』, (『정신문화연구』 34, 정신문화연구원 1988) 264~269면.; 조혜란, 앞의 논문, 138~139 면.; 반면, 김경미 교수는 이 대목을 가필로 보는 대신 남성주의적 시각에 충실한 플롯이 구현된 것이라 해석하였다. 김경미, 앞의 논문, 224 면.; 한편, 임태식 교수는 <최치원>의 작자를 최치원으로 보면서 이 부분이 가필되었을 것이라 추정한 김건곤 교수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최치원>이 실존 인물 최치원에 대한 고독한 인물로서의 이미지가 보편화된 이후 즉, 『삼국사기』가 완성된 1145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한다. 임태식, 앞의 논문, 29~31 면.

주인공들과 야합적인 관계를 맺어서 현실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최치원의 '풍광한'(風狂漢)적 태도가 드러나는 한편, 여성 주인공들의 적극적인 성적 욕망이 그려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에도 불우한 문사의 지기(知己)에 대한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여성들의 태도가 남성 주인공의 욕망이 투사된 것으로서 남성 주인공의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의 성적·사회적 욕망을 투사하여 형성된 귀녀(鬼女) 또는 여선(女仙) 형상, 그리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시켜 형성된 우물(尤物) 또는 요귀(妖鬼) 형상과 이 작품에 형상화된 여주인공과의 거리를 따져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작품의 실상과 거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데도 그간의 연구에서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 작품에 형상화된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 남성 주인공의 환상적 또는 비현실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최치원>에서 주인공 최치원과 초현실적 존재인 쌍녀분 주인공들과의 만남은 스스로가 꿈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환상적 체험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환상적 또는 비현실적 체험을 통해 남성 주인공이 그러한 야합적 만남을 주도해 나가는 여성 주인공들의 성적·사회적 욕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나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이러한 환상 체험을 통해 남성 주인공들이 얻어낸 여성 주인공들의 성적·사회적 욕망에 대한 이해는, 남성 주인공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의 의미에 대한 각성의 매개항으로 작용한다. 남성 주인공 최치원의 이러한 각성은 작품의 후반에 설정된 장편의 회상시, 그리고 귀국을 하면서 지었다는 짤막

한 시와 귀국 후의 은거를 통해 완성된다. 즉, 이 작품에서 주인공 최치원은 쌍녀분의 주인들과의 환상적 체험이 끝난 뒤, 그것을 회상하는 장편시를 지어 그것의미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성찰한 뒤 세상을 등짐으로써 성적·사회적 욕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존재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치원>은 남성주인공이 겪는 환상적 체험을 내부로 하고, 그러한 체험 이전의 상황과 체험 이후의 상황을 외부로 하는 액자 형식을 취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남성주인공 최치원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는 환상 체험을 매개로, 여성 주인공들의 성적·사회적 욕망이 남성 중심적 성윤리의 폭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자신의 성적·사회적 욕망도 현실세계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임을 각성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곤, 「신라수이전의 작자와 저작 배경」, 『정신문화연구』 34, 정신문화연구원 1988), 264~269면.
-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2010), 214~242면.
- 김문희, 『애정전기소설의 문체 연구』 (서강대 박시논문, 2002), 1~214면.
- 김지영, 「조선시대 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성」 (고소설학회편, 『한국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사, 2009), 38~78면.
- 박일용,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에 나타난 애정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3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2001), 193~233면.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31~70면.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연구』 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5~34면.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절사 장면에서 나타난 환상성과 그 의미」(『고전문학과 교육』 1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97~324면.
- 박재인, 「초월적 여성과의 결연 서사 유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태평광기(太平廣記)』의 여선 서사와 한국의 전기적 남녀결연 서사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9), 19~114면.
- 서지영, 「규범과 욕망의 틈새: 조선시대 문학 속의 섹슈얼리티」(고소설학회편, 『한국고소설과 섹슈얼리티』, 보고사, 2009), 9~36면.
- 양승민, 「17세기 전기소설의 통속화경향과 그 소설사적 의미」(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3), 54~67면.
- 엄태식, 「애정 전기소설의 창작배경과 양식적 특징」(경원대학교 박사논문, 2011.2), 1~205면.
-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적 욕망과 좌절」(『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12면.
- 이정원, 「조선조 애정전기소설의 소설시학」(서강대 박사논문, 2003), 88~92면.
- 이정원, 「애정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60~79면.
- 정규식, 「최치원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5~31면.
- 정출현, 「초기 한문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미적 구현 양상」(임형택 진재교의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성대출판부, 2005), 201면.
- 조혜란, 「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최치원」(『여/성이론』, 여이연, 2003), 126~143면.
- 최귀목, 「전기 <최치원> 다시 읽기」(『문학치료 연구』 16집, 문학치료학회, 2010.07), 37~58면.
- 황혜진, 「최치원 남녀 대화의 양상과 특징」(『고소설연구』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6~31면.

ABSTRACT

Study on the desire of <Choi Chi-won>'s hero and heroine

Park, Il-Yong

<Choi Chi-won> has the form as the picture in frame. The experience of the hero is so fantastic that it is distinct with real life. So it seems like picture in the frame. In picture of this work the hero have the fantastic love with unreal women. So at first they surprise because the unreal beautiful women want to love with him at first sight. But with meetings, he understand the reason why the women want to love with him. And he know that the sexual and social desire of the heroine are caused by pressure of the sex moral of that society. And after this experience he too understand that in real world though he desire love with those fantastic women he can not accomplish.

So we can say <Choi Chi-won> is the novels in which the hero underst -and the real meaning of the sexual and social desire of himself with his fantastic experience. It means that the writer and reader not only project their sexual and social desire to <Choi Chi-won>, but also introspect the real meaning of their desires.

Key Words Cheonki-roseoul, <Choi Chi-won>, <Manboksa Jeopo Ki>, <Yi-saeng Kyuchang Cheon>

논문투고일 : 2011. 3. 31
심사완료일 : 2011. 5. 20
게재확정일 : 2011. 5. 31